

## 히피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의미 및 영향에 관한 연구

李水仁·朴吉順\*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Influence of Hippie Hair Style and Fashion

Su-In Lee and Kil-Soon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目次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히피발생의 사회문화적 배경

2. 기호학

III. 히피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기호학적 의미 분석

1. 저항성

2. 평화와 사랑

3. 사이키델릭

4. 에스닉/노스텔리아

5. 개인주의

IV. 히피의 헤어스타일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의 패션

1. 에스닉/노스텔리아

2. 개인주의

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study has the aim to know the significance of hippie dress and hairstyle and to understand the influence upon them in 199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results of the significance of hippie dress and hairstyle in 1960' which had analyzed by the basis of pierce's semiotic theory showed social resistance, piece and anti-war, psychodelic, ethnic and nostalgia, and individualism.

Second, studying the character of the end of 1990' when hippie dress and hairstyle reappeared through related the papers, magazine, and articles, we could get the phenomenon of pastiche, postmodernism which had excepted the spiritual significance of hippie in 1960'.

## I. 서론

한 개인의 외모는 개인의 정보는 물론 사회·문화적 정보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전달체로서 시각적으로 의사소통을 가능케하는 기호이다.

20세기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사회규모가 점차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인간의 이질성과 유동성이 증대되어 주류권에 속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들은 심리적으로 소외감과 좌절을 느끼게 되었고 주류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하여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외모를 표현하기 위한 기호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표현하고 다른 주류문화와 구분하고자 하는 하위문화집단이 출현하였다. 하위문화집단은 다른 주류문화나 사회로부터 구별되기 위해 패션, 헤어스타일, 화장, 행동 등의 독특하고 특징적인 외모 기호를 이용하였다.

1960년대 미국은 새로운 창조력과 역동적인 발전에 따른 풍요로운 시대였으나 베트남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의 사회혼란을 가져왔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반전, 평화운동을 중심으로 하위문화가 출현하는데 그 대표적인 집단이 히피이다. 히피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패션, 헤어스타일 등을 이용하였다.

히피는 물질문명의 고발, 인간성 회복, 진정한 자아의 모색 등 저항정신을 담고 있으며 확립적 패션을 거부하여 개성과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패션에 대항할 만한 반패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히피는 1990년대 말인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시 재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60년대 나타난 히피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의 의미를 피어스의 기호학적으로 접근시켜 밝히고 1990년대 말인 오늘날 히피의 재등장에 미친 영향과 그 특징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반패션과 패션의 변화, 발전된 의미와 관계를 통해 오늘날 다양하고 개성화된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둔

다.

국내외 저서, 논문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표와 시각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히피발생의 사회문화적 배경

60년대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극한 냉전속에서 숨가쁜 경쟁의 결과로써 제 2의 르네상스라 할 만한 경제적 성장의 기간이었다. 새로운 창조력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로 잡지, TV, 영화 등의 대중매체 발달로 대중문화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미국 아폴로 11호가 달착륙에 성공함으로써 과학혁명시대가 열렸고 젊은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뉴프론티어 정신과 비틀즈와 록스타들에 대한 열광적인 몰두,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 여권신장, 흑인민권운동 등 끊임없는 변화가 있었다.

1964년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의 규모가 엄청나지면서 반전운동과 반항의 물결은 미국 전체를 휩쓸었다. 물질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 기존체계에 대한 저항적인 집단으로 기존 사회에서 이탈하여 평화적 해결방안을 추구하며 사랑과 평화의 구호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세대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 것이 히피문화집단이다.

히피출현의 가장 직접적인 근원은 보헤미니아즘의 전통속에서 실존주의적 가치와 허무주의에 기초하여 행동에 대한 일체의 제약과 전통을 거부했던 비트세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트는 1950년대 미국의 경제적 풍요속에서 획일화, 동질화의 양상으로 개개인을 거대사회조직의 한 부속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반기로서 민속음악(folk music)을 즐기며 산업화 이전시대의 전원생활, 인간정신에 대한 신뢰, 낙천주의적인 사고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형태, 상업주의에 대한 반발로 만연한 물질주의에서 탈피하고자 한 새로운 이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문화인 히피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sup>

히피라는 명칭은 원래 이전시대의 음악가들과 여타의 보헤미안들이 붙여준 다소 겸손한 느낌의

1) 간문자, 저항패션의 모페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히피풍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0-11, 1993.

별명으로서 20세기 초에 재즈 음악가들 사이에서 쓰이기 시작해 50년대 중반부터 비트세대에 수용된 은어, “hip”에서 유래한 것이다.<sup>2)</sup>

Webster사전에 의하면 히피를 심기중환자로 정의하면서 그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 “hipped”를 좌절된 원기가 없는 비이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서술하고 있다.<sup>3)</sup>

Hall은 히피문화의 특성을 가난, 인디언 주제, 전원/아르카디안(집단농장) 공동체이식, 사랑, 존재하는 지금, 플라워 파워, 지각에 이르는 문, 개인주의 등으로 설명하였으며 Patridge는 격리, 경험, 친밀한, 공동체의 도취, 의존함, 일시적 이동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Brake는 소극적 저항, 이동성, 표현적, 주관적, 개인주의로 히피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였다.<sup>4)</sup>

즉 히피문화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악물을 이용하였으며 악물과 유사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사이키델릭 아트를 개발하였다. 또한 현실도피를 현위치의 이탈을 이용하여 자연으로 돌아가 전원적인 생활이나 현재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쾌락주의가 나타났다. 환경과 에콜로지의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주의와 이웃의 민족이나 소수민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민족적이고 동양적인 철학이나 종교에도 관심을 가졌다. 또한 자유와 사랑을 그들의 이데올로기로 여겨 이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사상을 상징하는 꽃이나 아라베스크 문양을 다용하였다. 성에 대한 관념과 자유와 사랑을 근거로 하여 나체나 프리섹스가 만연되면서 무너졌다. 소수민족이 다양한 돌연변이의 장식을 통해 고유한 나만의 것으로 개인을 장식하였으며 소수민족적 아이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치를 독창적으로 코디하여 개인의 특성을 표현하는 개인주의가 중요시 되었다.

이와같이 히피는 물질만능과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에 의한 반감의식으로 머리모양, 의상, 습관, 사고방식 등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히피스타일의 특징은 대중매체를 통해 당시 패션

과 사회문화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다양한 스타일을 통하여 정체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기존체계에 대한 반응으로 사용한 히피들의 문화적인 특성을 기호학적으로 접근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 현대에 재등장한 히피의 문화적 특성과의 관계를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2. 기호학

기호학이란 인간의 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사물, 표현을 기호로써 파악하여 해명하는 폭넓은 학문으로 의미의 창출과 해석을 위한 학문이다.

기호학은 크게 구조주의 언어의 창시자인 언어학적 기호론을 제창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와 도상적인 범주내에서 비언어학적인 기호까지 포함한 기호학자 피어스(Charles S. Peirce)로 크게 나뉘어서 기초를 이룬다.

소쉬르의 기호론은 추상적인 언어체계인 랑그(langue) 측면과 개개인의 발화행위(speech)인 빠롤(parole)이라는 두가지의 측면으로 논의하였다. 랑그는 한 언어의 문법에 해당되는 기본구조이며 빠롤은 그것을 토대로 실제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운용되는 담화 또는 해당되는 실제 상황을 의미한다. 랑그는 개인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집단적 계약인데 반하여 빠롤은 선택과 현실로의 개별적 행동으로 주체가 개인적 생각을 표현할 때 랑그의 코드를 이용함으로써 담화(discourse)가 이루어진 것이다.<sup>5)</sup>

또한 소쉬르는 기호를 기표와 기위로써 구성되며 기표(signifier)는 기호를 구성하는 물리적 실체이며 기의(signified)는 물리적 실체의 의미로서 이들의 관계는 자의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약속으로 결정된다.<sup>6)</sup>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표와 기의를 결합시키는 작용에서 의미화가 이루어지며 이것을 통해 인간 사이에 의미소통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비언어학적 기호의 창시자인 피어스는 음운론을 중심으로 한 언어학과는 달리 언어 이외의

2) 서유리, 조규화, 미국 히피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vol. 19, no. 2, p. 279.

3) 앞의 책, p.279.

4) 간문자, p.32~41, 1993.

5) 소쉬르, 오원교 역 일반언어학 강의, 서울형설출판사, pp. 65-70, 1973.

6) 위의 같음, pp. 60-63.

인문과학에서 기인한 외적인 영향들로 다양한 대상 즉, 비언어적 체계들을 다루고 있다.<sup>7)</sup>

피어스(1913~1953)는 기호체계를 세미오시스(semiosis)라 하고 이것은 세계와 주체 즉 기호, 대상, 해석자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작용을 탈생체 하는 작용과 영향을 뜻하였으며<sup>8)</sup> 기호는 어떤 다른 것을 의미있게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호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9)</sup>

여기서 기호는 자기자신 외의 어떤 것, 즉 물체를 대표한다. 해석체는 해석자와 기호의 사용자가 아니라 기호에 의해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 개념이다. 이렇듯 기호는 대상을 대표함과 동시에 어떤 정신적 개념을 띠게 된다. 즉, 기호는 대상체를 사라지게 하는 대신, 해석체(사상체)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sup>10)</sup>

피어스는 기호의 3가지 유형, 도상(icon)기호, 지표(index)기호, 상징(symbol)기호로 구성된 기호의 삼분법을 중심으로 기호화된다고 증명하였다.

도상기호란 기호와 그것을 대표하는 것 사이에 유사, 상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sup>11)</sup> 그 대상과 관련을 맺은 기호로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들을 기호 자체가 유사한 대상으로 상상하도록 제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형문자나 증명사진과 같은 것이다.<sup>12)</sup>

지표기호란 대상에 대해서 실제로 영향받고 그 사실에 의하여 대상의 기호로써 가능한 것을 말한다.<sup>13)</sup> 여기서 실체란 지표적 기호와 그 의미를 이미지 자체내의 접촉에 의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IQ, GNP, 교통신호와 같은 것이다.

상징적 기호는 임의로 만들어진 기호로써 기호와 대상사이에 연관성 없이 약속, 또는 사회적 계

약에 의한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sup>14)</sup> 즉 상징적 기호는 이미지가 실제 세계에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상성과 이미지간의 요소들 사이에 연속성과 그요소들과 우리 자신들간의 연속성을 인식해주는 지표성의 도움으로 그 자의 성(恣意性)에 의해 약속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어스는 모든 기호가 도상, 지표, 또는 상징으로 구성된다고 서술하면서 한기호 역시 3개씩 모든 요소들이 어느 정도 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렇게 3가지 요소 모두 결합된 것이 가장 훌륭한 기호라 하였다.<sup>15)</sup>

따라서 본 연구는 피어스의 세가지 기호유형을 이용하여 1960년대 히피의 패션과 더불어 헤어스타일이 갖는 다양한 표현체계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I. 히피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기호학적 의미 분석

'60년대말의 물질만능과 실리주의에 대한 갈등과 회의를 근원으로 새로운 젊은 세대인 히피가 등장하게 된다.

Brake(1980)는 20세기의 다양한 하위문화의 존재는 현대사회의 문화적 복합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표현의 대안적 형태라 하면서 하위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특이한 가치관, 행동, 생활양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의모와 의복을 사용하여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주류 유행에 대한 반유행을 형성함으로써 하위문화 특유의 집단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6)</sup>

이와 같이 히피는 기존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가치관, 신조, 주된 관심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

7)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pp. 67-68, 1996.

8) 움베르코 에코, 서우석 역, 기호학이론, 문학과 지성, p. 24, 1996.

9) 김경용, p.30, 1996.

10) 위와 같음, pp.30-31.

11) 로버트 솔츠저, 유재천 역, 기호학과 해석, 현대문학 p. 194, 1988.

12) 장에란, 펑크룩이 반영된 비비안 웨스트우드 작품의 기호학적 해석, 복식 39호, p. 203, 1998.

13) 이수인, 영상매체계에 나타난 복식의 의미작용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1998.

14) 김경용, pp. 40-42, 1996.

15) 장에란, 펑크룩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 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39호, p.204, 1998.

16) 유송옥 외 2인, 복식문화, 교문사, pp. 273-274, 1998.

감까지 나타내는 과시적이고 의식적인 수단으로 스타일을 중요하게 사용하였으며 또한 '60년대 지배적이었던 기능적이고 미래적인 패션과 획일적 주류패션에 대한 반작용으로 로맨틱한 패션의 방향전환을 일으켰다.<sup>17)</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0년대 후반 패션은 히피의 영향으로 반전, 평화주의로써 꽃을 이용하거나 손뜨개, 페치워크 등을 이용하여 에스닉의 개념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민족조와 전원풍의 집시의상이나 러플, 프린지 장식의 인디안, 동양풍의 의상이 유행하였다. 모든 물질주의에서 이탈하고자 했던 젊은이들에게 있어 마약 복용은 현실도피나 의식의 확대라는 새로운 힘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환각을 연상케 하는 환상적이고 전율적인 싸이키델리아트를 바탕으로 화려하고 현란한 문양이 유행한다. 남녀 공용의 청바지나 긴 머리를 통해 패션에 있어서의 성의 개념을 허물고 더불어 나체에서 오는 자유를 만끽함으로써 성의 혼돈을 자아내어 유니섹스 모오드를 출현시켰다. 또한 "고유의 나로 돌아가라"라는 구호 아래 같은 재료이지만 독특한 개성을 살려 장식하거나 코드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히피스타일의 패션은 하나의 특징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특성을 함께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반전·평화주의에서부터 에스닉, 노스

텔지아, 사이키델릭, 유니섹스모 등의 모든 요소들을 일정한 기준없이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전통에 구애받지 않은 반패션적 특성으로 패션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히피 패션에 나타난 특징중에서 저항성, 반전평화와 사랑, 사이키델릭, 에스닉/노스텔지아, 개인주의를 착용하여 피어스의 기호학 이론을 히피의 헤어스타일을 고찰하였다. 히피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기호학적 의미는 <표 1>과 같다.

### 1. 저항성

히피들은 물질만능적이고 실리주의에 대한 갈등과 회의 근원에 두고 무모한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베트남 전쟁을 비평하면서 평화적인 반전운동을 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저항적 행위를 비폭력적인 반유행의 스타일을 이용하였다.

즉 기존세대들의 머리스타일과는 다르게 기르거나 기른 머리를 뒤로 묶는 형태<sup>18)</sup>인 지표를 이용하여 그들의 저항성을 상징하였다.(그림 1)

영국의 록그룹 가수들에서부터 시작된 남성의 긴 머리가 미국 전역에 전파되어 유행된 것도 록가수에 대한 모방, 자연회귀의 경향, 에스닉 취미, 신비주의 종교에의 심취 등의 영향도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긴 머리가 갖는 자유와 반항의 이미지가 당시 젊은이들의 요구에 잘 부합되었기 때문이다.<sup>19)</sup>

<표 1> 히피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피어스의 기호학적 의미

의미	저항성	평화와 사랑	사이키델릭	노스텔지아 에스닉	개인주의
기호	긴 머리	꽃	형클어진 그대로의 형태	자연스런 머리, 인디언머리장식, Afro헤어스타일	개성있는 머리장식
도상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상징	사회의 반항과 부정	반전과 평화 사랑	현실도피	자유주의 자연으로 회귀, 민속주의	자아도취

17)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4-55. 1996.

18) Barbara Bernard, Fashion of a decade 1960s, London: Academy Editions Farid, 1992.

19) 서유리, p.281, 1995.



<그림 1> 1960년대 히피 의생활과 패션

## 2. 평화와 사랑

"make love, not war"를 슬로건으로 한 히피의 반전운동은 "꽃"을 사랑과 평화의 상징물로 이용하였다. 그들은 폭력적이거나 도발적이지 않는 집단의 특성과 어울리게 꽃을 사용하여 그들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sup>20)</sup>



<그림 2> 꽃으로 장식한 히피의 신랑과 신부  
(*Fashion of a decades*(1960) p. 17).

히피들은 꽃을 이용하여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거나 귀엽게 꽃을 등의 머리장식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장식하여 평화의 마크로 이용한 꽃을 통해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꽃은 머리장식을 통해 히피는 반전 평화운동과 전세계의 사람으로 확대시켜 하나가 되는 모티브였다.(그림 2)

## 3. 사이키델릭

사이키델릭이란 마약과 유사한 환각상태를 느낄 수 있는 현란한 문양이나 사운드 등을 통해 이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키델릭에 영향을 받은 패션은 현란한 문양이나 흘치기염 등을 이용하여 사이키델릭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헤어스타일은 정돈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헝크러진 채로 그냥 놓아두는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환각상태에서의 현실도피를 이용한 헤어스타일의 지표는 정돈하지 않고 헝클어진 헤어스타일로 현실도피를 상징하였다.(그림 3)



<그림 3> Jauis Joplin  
(*Fashion of a decades*(1960) p.54.).

20) 위와 같음, p.283.

#### 4. 에스닉/노스텔지아

히피들은 당시 사회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국적인 것과 자연으로의 회귀에 대한 흥미로 대체시켰다. 기존의 미국문화에 대한 거부와 자연에 대한 향수에서 싹튼 에스닉과 노스텔지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히피의 에스닉은 인디안풍이나 동양풍의 프릴이나 자수 등을 이용하는데 특히 헤어스타일에서는 인디안풍의 에스닉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인디안의 경향으로 헤어밴드나 가죽끈을 이용하여 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히피의 집단은 백인 중심의 집단이었으나 후에 아프리카 에스닉에도 영향을 미쳐 'Afro' 스타일이 등장하게 된다.

'Afro' 스타일은 흑인 특유의 머리텍스처를 달리 가공하지 않고 커다랗게 부풀려 연출하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에스닉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또한 별다른 장식이나 정돈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방치하여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히피의 정신을 표현하였다. 즉 현실의 불안과 불만을 이국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대체시켜 에스닉/노스텔지아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4)

#### 5. 개인주의

히피패션은 히피철학을 사상적 근원으로 하는 전체적인 맥락속에서 풍부한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이는 히피문화가 공동체적 조화와 동시에 개



<그림 4> Afro 스타일  
(Fashion of a decades(1960) p.23).



<그림 5> 다양하게 머리장식한 히피  
(Fashion of a decades(1960) p.16).

인주의적 풍토를 존중하였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었다.

'고유의 나로 돌아가라' 뜻이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히피들은 같은 맥락속에서 표현 기법을 다양하게 추구한다. 즉 약세사리나 메이크업을 똑같이 모방하지 않고 다양하고 개성있게 표현하는데 긴머리에 헤어밴드나 가죽끈, 꽃 등의 약세사리를 이용하여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 장식하였다.(그림 5)

### IV. 히피의 헤어 스타일과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있어서의 패션

1950년대 이후 문학, 건축, 미술, 음악에서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은 사회학 철학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에는 일상적 삶과 연관된다는 문화적 변화연구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유일하고 체계적인 원칙이나 이론체계가 아닌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현상들을 총괄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다원주의, 철충주의, 복고주의, 탈중심주의, 해체주의 등의 현상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을 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바탕으로 오늘날 히피는 재등장하게 된다.

이전의 물질지향적, 과시적, 속물주의적인 사회 경제적 문화를 배경으로한 히피패션은 하위문

화집단으로 물질문명의 고발, 인간성 회복, 진정한 자아의 모색 등 저항정신을 담고 있으며 획일적 패션을 거부하여 개성과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패션에 대항할 만큼 반패션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패션을 절충주의를 채택하게 되어 상이한 여러시대의 양식을 혼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를 결부시켜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동안 배제되었던 요소들 즉 히피의 하위문화 요소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하위집단에 나타난 스타일을 일반 패션과 여러 가지 형태로 공존시켜준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다양한 히피들의 소외된 의사와 거리의 스타일은 일반패션은 물론 하이패션으로까지 재등장하였으나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히피는 출현 당시의 히피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같은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단지 외피만을 모방함으로써 저항적 하위문화 요소가 제거된 이른바 ‘혼성모방’ 현상의 특징을 지닌다.

오늘날 히피는 혼성모방적 절충양식과 더불어 더욱 심화, 발전되어 다원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 스타일, 표현기법이 동시에 나열되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패션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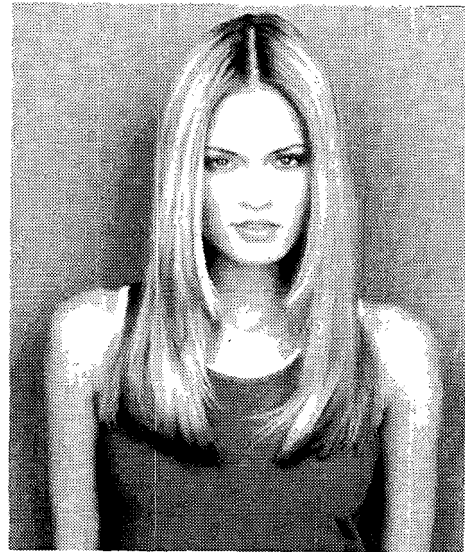
이와 같이 히피 패션의 특징은 '60년대 나타난 히피의 패션에서 변화, 변형되어 나타난 것으로써 본 연구의 <표 1>에서 제시한 기호학적 의미에 따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정신적 요소 즉, 저항성, 평화와 반전, 사이키델릭의 의미가 제거된 노스텔리아와 에스닉 그리고 개인주의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60년대 히피는 민속의상이나 낡은 옷들을 아무렇게나 걸쳐 입음으로써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성, 자기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반패션 특징을 지닌 것에 비해 오늘날 재등장한 히피는 일반패션안에 히피의 패션요소를 공존시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히피의 저항적 하위문화요소들의 의미는 제거되고 형식에 있어서도 현 패션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특징을 크게 에스닉/노스텔리아와 개인주의로 살펴보았다.

### 1. 에스닉/노스텔리아

'60년대 히피의 에스닉 요소는 아프리카, 인디안 민족들의 영향이 짙었으나 오늘날에 재등장한 히피는 일본풍의 심플하면서도 미학적이고 절제된 듯한 직물, 자수, 실루엣 등이 대거되고 있으며 스페인적인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문화의 혼재 속에 나타난 특징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에스닉은 꽃무늬, 패치워크, 꽃자수 등의 이국적 장식, 동양적인 프린트 등의 사용되며 블로킹이나 동식물을 이용한 자수 등을 이용하여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위하여 쉬폰이나 레이스를 이용하고 이를 대신하여 작은 구멍을 뚫어 비치게 하는 소재가 나타난다.

히피 하위문화의 대표적 의상인 청바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60년대 히피적 청바지의 낡고 찢어진 형태와 함께 길이, 실루엣, 색상 소재 등의 다양한 변화를 걸쳐 새로운 청바지가 나타나고 있다.

히피의 노스텔리아의 요소는 짐시의상과 더불어 근래까지 나타난 몸에 꼭 끼는 실루엣이 아닌



<그림 6> 자크데상쥬의 고급스런 긴 헤어스타일  
(Beauty fashion. 1999. 6. p.106.).



편안한 스타일로 엠파이어 원피스, 풍성한 볼륨감을 살린 스커트, Chunky Sweater(직접 손으로 뜯거나 손뜨개한 듯한 투박하고 거친 스웨터)가 등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히피 헤어스타일에도 노스텔지 어적인 편안한 스타일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히피들이 지향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으로 무작정 기른 긴 헤어스타일과는 다른 오늘날 재등장한 히피의 헤어스타일은 인간과 자연과의 접촉을 추구하는 것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모발의 질감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 독특한 멋과 스마트한 개성으로 표현한 고급스러운 긴 헤어스타일이 나타난다. (그림 6) 또한 자연과 어울려 지내며 그 아름다움을 스타일로 연결시켰던 집시들의 멋을 좀더 고급스럽게 발전시켜 패션의 스타일과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로 느슨하게 머리를 따거나 일부러 헝클어뜨린 머리카락을 느슨하게 따는 편안한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땀을 머리카락을 자수가 놓여진 실크나 가죽끈을 이용하여 엮어 에스닉적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그림 7)

이러한 편안한 헤어스타일은 재등장한 히피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패션과 어울려 오늘날 새로운 히피의 스타일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히피의 긴 헤어스타일은 "헤어 익스텐션"을 이용하여 가발이 아닌 모발을 붙여서 자신의 모발과 유사한 염색을 통해 긴생머리



<그림 7> 비탈사순의 느슨하게 머리를 땀은 스타일  
화장품 신문, 1999. 5. 31. p. 43.

를 구사하기도 한다.

## 2. 개인주의

히피의 개인주의 특성으로 나타난 오늘날 히피의 레이어드룩은 에이프런 스커트와 면바지 겹쳐 입기, 스커트에 면바지와 면티셔츠를 겹쳐 입거나 옷을 2개 이상 겹쳐입는 easy look, 스커트 단이 겹쳐진 샹스커트 등이 등장한다.

<표 2> 1960년대, 1990년대말 나타난 히피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비교

		1960년대 히피	1990년대 말 재등장한 히피	
패션	정신적 요소	저항, 평화, 반전, 사이키델릭	정신적 요소 배제	
	형식적 요소	에스닉 / 노스텔지아	인디안, 아프리카적 에스닉 집시 의상	일본, 스테인적 에스닉 편안한 실루엣으로 다양한 소재, 색상, 길이
		개인주의	개인적 레이어드 표현	레이어드룩 특성을 지닌 의상
헤어 스타일	정신적 요소	저항, 평화, 반전, 사이키델릭	정신적 요소 배제	
	형식적 요소	에스닉 / 노스텔지아	정돈하지 않는 스타일, 무작정 기른 긴 머리	고급스럽게 정돈 건강한 긴 모발, 기술을 동원한 인위적인 긴 모발을 이용한 헤어스타일
		개인주의	헤어밴드나 반다나, 꽃 등을 이용하여 개성적이고 자유롭게 표현	꽃이나 나뭇잎을 이용한 헤어밴드, 헤어핀 삼각형 머리두건, 니트두건

이러한 패션의 영향으로 헤어스타일에도 개인 주의적 특성이 나타나는데 특히 헤어 악세사리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다채로운 컬러와 모양을 보이고 있는 헤어밴드, 나비나 꽃으로 장식된 편종류, 삼각형 머리두건이나 니트두건으로 오늘날 재등장한 히피의 레이어드룩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오늘날 재등장한 히피는 '60년대 히피와는 다르게 저항성, 평화 반전 등의 정신을 배제한채 나타난 것으로 하위문화적 요소였던 에스닉, 노스텔리아, 개인주의적 특징이 일반 패션에 절충된 모습으로 보여졌다. 또한 형식도 '60년대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V. 결 론

하위문화집단은 그 스타일(패션과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기호들을 통해 자체의 동질성과 다른 주류문화와의 이질성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하위문화집단 중 대표적 집단인 히피는 스타일을 이용하여 자유롭고 개성있는 자신을 표현하고 외부와 구별하는 기호적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1960년대 나타난 히피의 헤어스타일을 피어스의 기호학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5가지 즉, 저항성, 반전과 평화, 사이키델릭, 에스닉과 노스텔리아, 개인주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1990년대 말에 재등장한 히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절충주의에서 채택되어 히피의 저항성, 반전과 평화, 사이키델릭과 같은 정신적 의미는 배제된 단지 외피만을 모방한 혼성모방의 성격을 지니는 히피로 다시 태어났다. 또한 단순히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변형, 변화되어 독특한 히피의 새로운 스타일을 표현함으로써 반패션과 패션의 절충과 더불어 다원적인 패션과 헤어스타일의 표현세계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하위문화집단인 패션과 헤어스타일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 반패션의 혁명에서 어떻게 일반패션까지 그 스타일이 인정되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반패션과 패션의 특징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확장된 표현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다양

한 하위문화의 헤어스타일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간문자,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히피풍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 김만자, 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vol 11, no. 2, pp. 69-89, 1987.
- 김소영, 양숙희, 진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반문화를 중심으로- 의류학회지, vol 20, no. 4, pp. 573-585, 1996.
- 김종복, Fashion sense search 1, 2, 도서출판 시대, 1997.
- 나수임, 한국 의례복식의 기호학적 분석(1) -조선시대 혼례복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 4권 제 3호 395-406, 1996.
- 덕랩디지저 이동연 역,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현실문화연구, 1998.
- 로버트 솔츠저, 유재천 역, 기호학과 해석, 현대문학 p.194, 1988.
- 베르나르투세, 윤학로 옮김,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정하, 1993.
- 서유리 외 1인, 미국 히피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vol. 19, no. 2 pp. 278-286, 1995.
- 소쉬르, 오원교 역, 일반언어학 강의, 서울형설출판사, 1973.
- 안선경, 양숙희, 복식에 나타난 사이키델릭 이미지, 의류학회지, vol 23, no. 1, pp. 144-158, 1999.
- 움베르토 에코저, 서우석 역, 기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6.
- 유송옥 외 2인, 복식문화, 교문사, 1998.
- 이수인, 영상매체에 나타난 복식의 의미작용에 관한 기호학적 접근 -TV드라마 「에인」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혜영 외 2인, 의생활과 패션, 경춘사, 1996.
- 장애란, 펑크룩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

- 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39호, 1998.
-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조진숙, 1930년대 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신문소 설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 4권 제 3호 407-426, 1996.
- 한국섬유신문 1998. 11. 26, 1999. 1. 11
- 스포츠 서울 1998. 8. 6.
- 서울경제신문 1998. 10. 25.
- 일간스포츠 1999. 6. 16.
- 화장품 신문 1999. 5. 31.
- 휘가로 1999. 5.
- vogue 1997. 6.
- Beauty fashion 1999. 6.
- Modain, n, 111.
- Barbara Bernard, *Fashion of a decade 1960s*, London: Academy Editions. Farid, 1992.
- Chenoune, *A history of Men's Fashion*, Flammarion, 1993.
-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Thames and Hudson, 1992.